

여야, 연금 소득대체율 '1%p 차이' 좁혀질까

국힘 "42~43%" vs 민주 "44~45%" 주장 '힘겨루기' '자동조정장치'도 세부 충돌 ...야권, 단독처리 가능성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야당안 단독처리 방침을 밝히는 등 여당을 압박하면서 장기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은 24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낸 42%안, 민주당이 낸 44%안 중 어떻게 합의할지 토론을 해보자"고 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가능한 소득대체율 범위는 42%, 43% 정도다. 44%는 좀 그렇다(합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작년에 분명 44% 이야기를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정협의회에서 갑자기 42%를 들고나왔다.(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도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견해차가 감지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여당 측이 주장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역시 소득대체율 44%를 전제로 할 때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는 데 '국회의 승인'이라는 단서가 붙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논의가 순탄하지 않게 흘러가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단독 처리 시나리오 실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차 회담'에서도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야당이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인터뷰에서 "1%포인트 차이이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결정하면 25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내에서는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어떻게든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과 여당이 끝까지 뽀니를 부리면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어 지금 시점에서는 이 말 처리 입장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4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윤상원 열사의 묘비를 참배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24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찾은 김경수 전지사

"탄핵 찬성 세력 힘 모아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은 누구든지 함께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내란을 정권 교체를 통해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명록에 '광주가 다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광주정신을 헌법에 새겨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썼다.

김 전 지사는 "이제는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수많은 갈등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절박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려면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고향인 호남에서 미래를 다짐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5·18 묘지 참배 후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나 전국 5개의 초광역권 지방정부, 제주항공 참사 이후 진행 상황, 광주시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그는 또 강 시장과 5·18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신안, 목포, 광주 등지를 방문했다. 그는 부인의 고향인 신안 임자도를 찾아 친지들에게 귀국 인사를 하고 박우량 신안군수와 임자대교 등도 둘러봤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힘 김상욱 의원

"국힘, 탄핵 반대 집회 송구"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은 2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는 12·3 비상계엄과 2·15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올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을 만나 "이 자리를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일부 언론 기사도 나왔지만 당내의 반발도 분명히 있었고 일부 뜻을 같이하던 동지들조차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계셨다"며 "정치를 하는 사람 또는 공인으로 나선 사람이라면 사리사욕, 당리당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을 받드는 것이고 또 지키려는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광주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방명록에 '민주주의의 성스러운 수호 영령들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지켜갈 것을 다짐하며 마음 올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헌화·묘념 후 묘지 내 유영보안소를 찾아 오월 영령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 분 한 분 꽃다운 분들이신데 뜻을 다 펴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것"이라며 "우리가 이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갈등으로 생명력을 얻으려고 하는 '나쁜 정치'가 그만 멈춰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의미가 갈등으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폄하되고 부패되는 그런 잘못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제2 묘역 모든 묘비를 찾아 국화 1500송이를 헌화했다. /김해나 기자 khn@

여의도 브리핑

전남대, 중소벤처부 '창업 중심 대학' 선정

안도걸 의원, 예결위 활동 성과

전남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 중심 대학으로 선정됐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남대는 이날 대학을 창업 혁신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 중심 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 지역 내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 관련 교육과 투자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창업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안 의원은 "광주시, 전남대 관계자들과 함께 사



업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정책 협의회를 열어 창업 중심 대학 선정의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전남대가 호남 지역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